

거룩한 새판짜기,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뉴스레터 News Letter 250호 주후 2021년 11월 9일(화)

'Charting the New Normal, Moving beyond Restoration into Revival'

살아있는 응답의 현장 글로벌 특새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때에 사랑하는 영가족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살아있는 응답의 현장 제19차 글로벌 특새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위드(with)코로나' 시기를 '비욘드(beyond)코로나'로 뛰어넘기를 소원하여
이른 새벽 찬 공기를 가르고 아버지 집으로 달려오는 사랑하는 영가족의 걸음 소리는
세상을 향해 보냄 받은 '하나님의 용사의 발걸음'이요,
새벽 3시 안아주심의 본당을 가득 매워 주님께 마음의 무릎 꿇은 사랑하는 영가족의 기도 소리는
마귀를 향해 선제공격하는 '기도 대첩의 외침'입니다.

특새 첫날 주님 말씀처럼, 우리 모두의 상처가 치유되고, 순수한 이름이 회복되어,
주님 사랑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짐으로, 맡겨주신 자기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제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번 특새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애환을 주님께서 아시니 맞춤형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밝고 환한 영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달려야 할 자에게는 '준마의 응답'을,
흔들리는 자에게는 '모퉁잇돌의 안정감'을, 버텨야 할 자에게는 '말뚝의 인내'를,
그리고 돌파해야 할 자에게는 '화살의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회복을 넘어 이전에 없던 부흥'을 경험하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며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다니엘 9:17)

주후 2021년 11월 8일 주 안에서 따듯이, 오정현 목사 드림

사진제공:뉴스네트워크실

TODAY'S PRAYER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

- 1 주님께 마음의 무릎 꿇은 영가족들이 응답의 늦은 비를 간절히 구할 때, '맞춤형 응답'을 체험하여 육체의 한계와 부족함을 뛰어넘는 '초월적 시각'을 갖게 하시고, 상처가 치유되어 나의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따르는 온전한 제자 되게 하옵소서.
- 2 나라와 민족과 글로벌 교회 위에 하나님의 현재적 은혜를 부어주사, 예배의 영광과 사명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율법의 딱딱한 지판(地板)을 복음의 능력으로 뒤집는 거룩한 새판짜기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 3 사랑글로벌아카데미(SaGA)가 역동적인 영적 리더를 양성하여 다음세대에 비전을 심는 21세기 영적 집현전이 되게 하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영적 성장이 정체되는 시대상황을 돌파하는 '역사와 부흥의 선봉장'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설교 요약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계 5:1~14]

데이비드 플랫 목사



다시 갈릴리로 오라

[요 21:15~22]

최병락 목사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역사의 주권자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고, 중국에는 질병이 이 땅에서 없어지고 죄와 죽음도 사라지며 예수님만이 영원히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필요를 아시고 모두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이 약하다고 느낄 때, 불안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의로운 오른손으로 반드시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삶과 세상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복음이 간절히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고, 모든 족속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복종하고 그분의 이끄심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간 베드로의 상처를 회복시킨 뒤에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받은 상처가 있다면, 반드시 다시 갈릴리로 와서 회복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첫 이름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베드로”라고 생각했던 정점의 순간에 그는 주님을 부인하며 무너졌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반석)라는 부담스러운 이름 대신에 처음 만났을 때의 이름인 “시몬”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첫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을 때 나의 사랑 또한 식어지게 됩니다.

나의 십자가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보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가 크고 무거울수록 영광의 면류관은 크고 장대하기 때문입니다.

부흥열전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 새벽기도의 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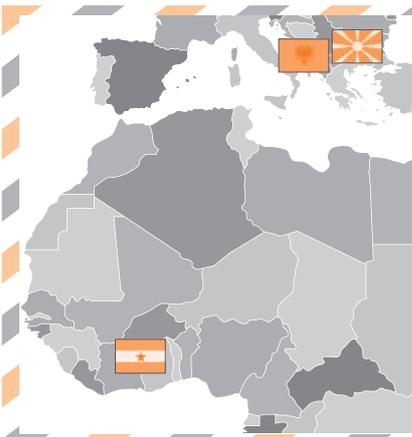


한국교회 새벽기도가 정착된 데에는 길선주 목사의 영향이 큼니다. 길선주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선도(仙道)의 수행자였습니다. 청일전쟁 후에 기독교로 개종한 그는 평소 수행하던 새벽, 통성, 철야기도를 1905년 말씀사경회 때 도입했고, 1909년에 이르러서는 교회 안에 정식 기도회로 정착시켰습니다.

흔히 길선주가 섬기던 평양 장대현교회 새벽기도회가 1907년 1월 평양대부흥운동 전인 1906년 가을부터 시작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기록을 인용한 것입니다. 평양부흥운동이 끝난 뒤에 신앙의 열기가 점차 사라지고 냉랭해지자 다시 부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기도운동을 전개합니다. 이 기도운동을 새벽기도회라는 명칭으로 장대현교회에 정착시켰는데 이 시기가 1909년입니다.

1년 후 일제 치하가 시작되면서 1920년대 후반부터는 거의 모든 교회에 새벽기도회는 정착 되었습니다. 신앙의 선조들은 국가의 해방을 새벽기도 자리에서 부르짖었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쌓여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특새참여 실시간 해외 기도제목



알바니아에서 Abby

특새 사역에 수고하면서 알바니아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나에서 Frank

저는 이제 담임목사직에서 은퇴합니다. 가나경찰교회 제자훈련 사역이 잘 이어지도록 준비하는 과정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케도니아에서 Dragan Manev

오늘 도전을 주는 설교에 감사합니다. 마케도니아의 복음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중보해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글로벌아카데미 On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

회복을 넘어 부흥의 새 역사를 함께

사랑글로벌아카데미(SaGA)는 21세기 '영적 집현전', '영적 사관학교'로 글로벌 역량을 갖춘 전문사역자와 평신도 리더를 견고히 세워 미래 변화를 선도하고 영적 정체를 돌파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대를 깨워 비전을 심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며 미래 사역의 새 장을 열어가는 주역들을 양성하여 회복을 넘어 부흥의 새 역사를 일구는 거룩한 사역에 여러분 모두를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며, 아름다운 꿈을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글로벌아카데미(SaGA) 총장 오정현 목사

하나님께서서는 혼돈의 시대, 역사의 변곡점마다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창조적 소수의 사람들'을 세워 시대변화를 선도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셨습니다. 사랑글로벌아카데미(SaGA)는 '탁월한 교육', '끊임없는 연구', '글로벌 사역' 세 가지 핵심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미래의 영적 리더들을 양성합니다. 21세기 영적집현전 사랑글로벌아카데미(SaGA)에서 역동적인 글로벌 영적 리더(Global Spiritual Leader)로 다음 세대에 비전을 심고 미래 사역의 새 장을 열어갈 2022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주후 2021년 11월 1일(월) ~ 12월 31일(금)
- 원서접수** 홈페이지(www.saga121.com)
- 문의** 사랑글로벌아카데미 교학관리실 (T. 02-3495-1951, 1953)

SCHOOL OF WORSHIP

예배의 가치와 능력을 회복시키는 **예배아카데미**

헌신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훈련하여, 교회와 열방에서 역동적인 예배·문화·예술 사역을 펼쳐 나갈 글로벌 영적 리더를 양성합니다.



김려정 빛교회 전도사

SCHOOL OF DISCIPLESHIP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성장 시키는 **제자훈련아카데미**

초대교회 성경적 제자도의 토대 위에 21세기 디지털 시대를 맞이한 지역교회와 선교지를 섬길 제자훈련 전문 사역자와 평신도 리더를 양성합니다.



조성민 상도제일교회 담임목사

SCHOOL OF MARKETPLACE MISSION & GLOBAL NETWORK

신학과 전문성을 겸비하여 일터에 복음을 전하는 **일터선교&글로벌네트워크아카데미**

일터에 영적 활력을 불어 넣으며 선한 영향력을 끼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터선교사와 선교적 기업가를 양성합니다.



조훈제 경영인

코로나와 위드 코로나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여 현 시대에 참다운 **예배자**로서 **영성, 실력, 지성**을 아우를 수 있는 너무나 귀한 1년간의 배움이었습니다. 영성과 더불어 미디어 사역과 콘텐츠 제작 등 어느 곳에서든지 음악과 영상의 **전문사역자로 섬길 수 있는 실력**을 겸비하고 싶은 분들에게 **예배아카데미**를 추천합니다.

온전론은 제 삶을 온전하게 그리고 제가 목회하고 있는 상도제일교회의 사역이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제자훈련의 가장 중요한 의미들을 새롭게 다지게 한 복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담임목회자 멘토링을 통해 한국교회의 좋은 목사님들과 대화하며 **영적인 상생**을 이루기 원하는 담임목회자들에게 **제자훈련아카데미**를 추천합니다.

일터선교&글로벌네트워크아카데미는 열정을 가지고 사회에 막 진출한 대학·청년 크리스천에게는 험한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지혜와 순결로 무장한 혁신의 선구자**로서의 꿈을 꾸게할 것이고, 일터에서 열심히 성과를 내고있는 장년 크리스천에게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자신과 가정 그리고 일터를 보호하는 하나님 나라의 정병**이 되게 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토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준비되기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일터선교&글로벌네트워크아카데미**를 추천합니다.



정미현 집사(서귀포동원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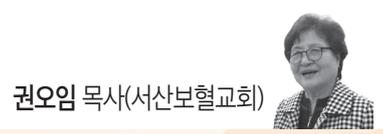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시점에 특별새벽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귀 기울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글로벌로 전 세계가 함께하여 모든 크리스천들이 **회복되고 부흥**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일찍 일어나서 앞서 준비하고 수고하시는 모든 사랑의교회 관계자분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늘 함께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진은 딸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참여교회 소감 On



시골 농촌교회에서 어르신 성도님들을 목양하며 목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자녀들이 어르신들을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여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손을 들고 하늘 문을 열고 기도하라고 하실 때,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말씀 통해서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복되어 충성되어 사역을 해야지!** 라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비록 시골 교회에서 어떤 장비나 컴퓨터도 없이 핸드폰으로 몇몇 어르신들과 함께 특별새벽기도회를 드렸지만, 작은 **핸드폰 화면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맞춤형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쏟아져 내려 새 힘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사랑의교회에 감사의 예물을 온라인으로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임 목사(서산보혈교회)

알림 On

1. 기도주제

오늘의 기도 주제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 입니다.

2. 감사소개

*오늘: 폴 칠더스 (YWAM 하와이 열방대학 총장)
'고난을 극복하는 믿음' (욘 31:6)
박성현 (고든 콘웰 신학교, 한 달란트의 저자)
'한 달란트' (마 25:14-30)

*내일: 찰리 스크라인 (런던 All Souls Church)
'사도바울의 위대한 기도들' (엡 3:18)
윤치영 (시드니 어노인팅교회, 살려내심의 저자)
'살려내심' (고전 1:18-25)

3.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특새기도카드 활용안내

특새 기간 중 응답 받기 원하시는 기도제목을 적어서 각 예배실 입구에 비치한 기도카드 수거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은혜채플, 사랑아트채플을 제외한 부속실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남, 북측 1층 출입문에 위치한 기도카드 수거함에 넣어주세요.

4. 주차안내

교회주차장, 마제스타시티 지하 6,7층: 월요일-금요일 2시 30분 - 7시 30분 까지 (이후 유료), 토요일: 2시 30분-8시 30분 까지 (이후 유료), GS파크 24: 2시 30분 - 7시 30분까지 (이후 유료), 토요일: 2시 30분 - 8시 30분까지 (이후 유료). 성숙한 주차문화는 교회의 자랑입니다.

5. 은혜게시판 활용

부흥의 현장인 특새의 은혜를 게시판에 담아둠으로 은혜의 수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번호 201 - 300번 성도님께서는 '수면양말'을 드립니다. 1-200번 분들은 남측 1층 안내 데스크에서 '100% 회복 주스'를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세계교회 성도님께서는 Sarang On YouTube 영상 아래 '더 보기란'에 나와있는 <글로벌특별새벽부흥회 연합홈페이지>링크 globalrevival.sarang.org 를 클릭하셔서 성함, 교회 이름과 함께 받은 은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물같은 특새은혜, 게시판에 담이두지

정다정 _ 비전을 다시 찾은 특새

사랑의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만발치에서 응원하는 청년입니다. 부활주일 이후 여러 교회의 예배 상황을 잠깐씩 보다가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사랑의교회 특새 영상을 그냥 골림으로 눌렀습니다. 그리고 이번 특새 기간 동안 하나님이 살아 계신 분임을, 이제는 성경에서 나타난 이적과 그 모든 일들이 전부 다 믿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늘 사랑의교회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황희정 _ 귀한 집사님의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찬양의 은혜와 뜨거운 기도의 특새 첫날! 은혜의 단비가 제법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딸 아이와 함께 1층 문 앞에 서성이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께서 새 우산을 품에 가득히 안고 오셔서 우산이 없어 난처해하는 여러 성도님들께 나눠드리고 제게도 우산을 주셨습니다. 한 분의 귀한 섬김으로 특새 첫 날의 은혜가 더 풍성하였고, 저도 그렇게 섬기는 자로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아침입니다.

심선이 _ 주님의 사랑만이 가능합니다

아무것도 못 할 것 같은 찌그러진 마음도, 무엇이든 잘 할 것 같은 풍선처럼 부푼 마음도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사랑만을 구하고 의지하오니, 크신 사랑 제게 부어주소서 상처를 회복하고 십자가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최선화 _ 다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16년 만에 남편이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번 19차 가을 글로벌 특별새벽부흥회를 시작으로 가시 많은 상처에 은혜로 접붙여 주사 은혜의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께 접붙여 살길 원합니다.

부흥의 시절, 함께 했던 공동체 프로그램



엄마, 엄마는 교회와 관련된 어떤 부흥의 추억이 있어요?

응 그래, 사실 엄마 때는 말이야~



문학의 밤



문학의 밤은 1950년대 이후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연중행사였다. 온 교회가 모여 꿈트, 시 낭송, 연극, 음악회 등의 공연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었지.

포크댄스



포크댄스는 교인들 간에 어색한 거리를 좁혀주고 인사를 나누게 하는 대표적인 레크레이션 시간이었어. 처음에는 꾸뻑꾸뻑 하다가도 금새 익숙해져서 앞사람과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며 친해졌지. 사실 엄마아빠도 이날 같이 춤을 추면서 친해졌단다^^

(출처: 멜버로산나교회)

천로역정



(출처: YFC 여흥수련회)

천로역정은 주일학교 수련회 단골 코스였어. 죄의 무게 체험하기, 유언장 쓰고 관에 들어가는 장례식 체험 자신의 죄를 노트에 쓰고 불로 태우는 죄 용서 체험 등 신앙의 다양한 여정들을 직접 몸으로 체험해보는 시간이었지. 이날 엄마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단다.

캠핑파이어

수련회의 꽃은 뭐니뭐니 해도 마지막 날 밤 캠핑파이어였단다. "눈을 감습니다. 이제 이곳에는 나와 하나님만 있습니다..."라는 멘트는 캠핑파이어 단골 멘트였어. 수련회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세상으로 파송될 준비를 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던단다.



(출처: 푸른사랑의교회)



와, 엄마 너무 멋있어요! 저도 이번 특새부터 이런 추억 많이 쌓아서 나중에 꼭 들려주고 싶어요!

인생 첫 특새



둘째날

우리의 기도가 영혼의 맥박이 뛰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출석표의 절취선을 오려 출석부에 붙여주시시오.